

한미, 오늘부터 2차 농업 고위급 협상

한국, 농업 희생하는 '빅딜'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업과 자동차, 섬유 분야가 전체 협정 타결을 좌우할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19~21일 열리는 2차 농업 고위급 협상과 이를 준비하는 농림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 철폐'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분야를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도 일축하고 있다.

농업 협상 9개월간 제자리=양국은 주요 농산물의 양허(개방) 방향을 놓고 지난 여덟 차례의 실무협상과 이날 초 워싱턴에서 열린 1차 농업 고위급 협의 등에서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림부 "미국 타결 원한다면 요구 수준 낮춰야" 입장 차 분명...쇠고기 관세-검역 연계 여부 주목

우리나라는 미국이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감귤 등 우리 측 '민감 품목'을 인정하고 우리가 '즉시 관세 철폐'를 대신해 민감도와 시장특성에 따라 품목별로 제시한 양허 제, 수입쿼터(TRQ), 세 번 분리, 계절관세 등의 다양한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8차 협상과 최근의 고위급 협의 등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농림부 "미국 요구 수준 낮춰야 타결 가능"=현

재, 농림부 입장은 '우리는 핵심 민감 품목을 결코 양보할 수 없으니 미국 측이 만족하고 알아서 물러나라'는 것이다.

고위급 협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민통석 농림부 통상차관보는 "농업의 경우 우리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양자 간 협상에서는 이 같은 서로 상황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관세 철폐 원칙만 고집하는 미국 측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쇠고기 관세-검역 연계되나=이번 2차 농업 고

위급 협의의 최대 쟁점은 역시 개방 민감도가 가장 큰 쇠고기의 현행 40% 관세 유지 여부다. 쇠고기와 오리엔지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 측의 기본 입장은 수입쿼터(TRQ) 등은 논의해볼 수 있으나 현행 관세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관세 문제뿐 아니라 '뺏조각 논란'을 비롯한 검역 문제가 함께 얽혀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미국 측은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오는 5월 자국의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이 확실한 상태이므로 이날 말 FTA 체결시한까지 5월 확정과 동시에 즉시 배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토록 기본 사항을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김홍업씨의 출마를 보는 눈



김홍업씨 서울취재 팀장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차남인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무안·신안 보궐선거에 나섰다. 김씨는 출마의 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살아온 경험을 남김없이 바치겠다"며 "분열된 민중, 평화세력을 하나로 묶는 데 밑줄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보궐선거 출마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금치 않다. 우선 권노갑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3선을 누렸던 DJ의 장남 김홍업 전 의원이 이어 동생인 김씨가 한화갑 전 대표의 지역구에 출마한 것은 과도한 욕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씨가 무안·신안 지역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는 데다 뚜렷한 정치력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다.

여기에 김씨가 이권청탁 등의 혐의로 지난 2003년 5월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확정 판결을 받고 2005년 사면·복권된 점도 탈락지 않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등 부정적 여론에도 출마를 강행한 것은 DJ의 후광이면 당선될 것이라는 특권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김씨의 당선도, 낙선도 격정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김씨가 당선된다면 무안·신안 지역민들은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고 낙선한다면 DJ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던 호남을 생각했다면 DJ가 아들 김씨를 꼭 끼자 마셨어야 한다는 것이다. DJ가 자식을 위해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판적 여론에 대해 김씨는 "당선된다면 분열된 민주세력을 통합하는 데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대통합의 명분을 내걸어 비난을 피해가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김씨의 출마가 아버지의 고향, 즉 지역주의적 기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합의 명분은 이미 미를 상실했으며, DJ의 후광이면 대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자만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김씨의 출마와 당선은 호남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인들이 흔히 새겨야 할 단어 가운데 예외와 열치라는 말이 있다. 김씨의 출마는 어려웠던 시절 변함없이 DJ를 지지했던 호남 민심을 생각할 때 예외에 벗어난 결정이며 김 전 대통령의 암묵적인 영인도 고려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후보 공천을 고안하고 있는 민주당도 김 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기 보다는 호남 유권자들에 대한 '예외'와 '열치'를 먼저 새겨야 한다.

tuim@kwangju.co.kr

"한국인 美비자면제 쉽게 풀릴 듯"

내광 윌리엄 스탠튼 주한 미 대사관 부대사



윌리엄 스탠튼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는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적용은 주한 미대사관의 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 발급을 추진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와 안보문제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자 면제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지난 15~16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아메리칸 코너 등을 방문한 뒤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5·18 묘지를 찾게 된 동기와 소감은

▲광주가 한국 민주화의 성지이고 시민들의 의식이 민주주의의 역동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변화의 핵심이 5·18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한 번 찾고 싶었다. 감동적이었고 조형물들도 인상적이었다.

-광주 아메리칸 코너가 협소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과 대구에 아메리칸 코너가 있지만 광주가 가장 크다. 시설과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올리는 한계가 있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전망은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3%대에

근접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만 관련 법안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우리도 한 해 45만건을 처리하는 예산과 인력을 줄여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시점이 임박했다. 전남은 농산물에 특히 민감한데

▲한·미 양측에 모두 민감한 부문이 있어 고위급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다. 중국·베트남 등 보다 우위를 지키려면 경쟁력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선 분야에 따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 평화체제 구축과 수교

논의가 한창인데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관계정상화를 원하느냐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예스'이길 바란다. 비핵화 된다면 관계 정상화는 가능하다. 미국도 남북한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통일되기를 바란다. 그게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끝이 아니라 구조된 변화일 뿐이다. 한국의 군사능력 신장으로 볼 때 오래 전에 이뤄져야 했다. 충분한 준비가 돼 있으므로 2012년까지는 우리가 불식될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부, FTA 관련 서비스·농업 지원 대책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여러 FTA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또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미 마련된 119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농업 인프라 투자 대신, 투·융·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18일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말 한미 FTA가 일단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부처별로 피해분야 지원대책을 마련, 이르면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FTA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기록 영화 방영



북한 조선중앙 TV는 지난 17일 방영된 기록 영화 '위대한 선군 영도의 길에 함께 계시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총사격 연습하는 모습과 백마에 올라 있는 모습(내모안)을 방영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하나투어' (Hana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visa services, and lottery information.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various promotional offers.